극장가 '블록버스터' 몰려 온다

2012·셜록 홈즈·뉴문… 재난·탐정·판타지 등 소재 다양

막대한 제작비를 투입한 블록버스터 공습이 시작됐다.

12일 가장 먼저 개봉하는 '2012'를 비롯해, '셜록 홈즈' 등 화제작들이 줄줄이 대기중이다.

지난달 공개된 예고편 만으로도 많은 화제를 불러모았던 '2012'는 인류 절망의 해로 예고된 2012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재난영화다. 고대 마야 문명에서부터 예언 되어온 인류 멸망의 해가 다가오자 세계 곳곳은 지진과 화산폭발, 거대 해일 등이 계속된다. 아이와 여행중이던 주인공 잭은 정부가 종말을 대비해 비밀 계획을 진행해 온 사실을 알게된다. '인디펜던스 데이', '투모로우' 등 재난영화에 장기를 발휘해온 롤랜드 에머리히 감독 작품이라는 점에서 더욱 기대감이 높다. 가족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주인공 역의 존 쿠색을 비롯해 아만다 피트, 탠디 뉴튼 등이 출연한다.

'크리스마스 캐롤'(26일 개봉)은 찰스 디킨슨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로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이 세 유령을 따라 과거, 현재 미래로 떠난 여행을 그리고 있다. 로버트 저메키스가 메가폰을 잡은 '크리스마스 캐롤'은 일반 실사 영화와 달리 퍼포먼스 캡쳐(수백개의 센서를 달고 배우가 연기하면 그 움직임을 감지해 CGI로 재현하는 것) 등 최첨단의 CG 기술로 완성된 영화라는 점에서 더욱 기대감을 높인다. 1인 4역을 연기한 짐 캐리를 비롯, 게리 올드만, 콜린 퍼스, 밥 호스킨스 등 호화 캐스팅을 자랑한다.

'타이타닉'의 제임스 카메룬 감독의 **'아바타'**(12월 17일 개봉) 역시 제작 초기부터 기대를 모았던 작품이다. 역대 최고의 제작비로 추산되는 3억 달러(약3천 500억원)이 투입된 대작이다. 영화는 22세기를 배경으로 '판도라'라는 행성에서 살고 있는 나비족과 이들과 인간을 결합한 아바타를 둘러싼 이야기를 3D영상으로 담고 있다. 3D 실사영화다. 실제 배우의 얼굴을 실시간 스캔, 샘 워싱턴, 시고니 위버 등이 출연한다.

'셜로키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 세계에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명탐정 홈즈도 영화로 관객들을 만난다. 유쾌한 사나이 가이 리치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셜록 홈즈'**(12월 24일 개봉)는 코난 도일의 소설이 아닌, 만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다. '아이먼맨'의 히어로 로버트 다우 주니어가 홈즈로 출연하며 그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왓슨 역으로는 주드 로가 출연한다. '노트북', '시간 여행자의 아내'의 레이첼 맥애덤스도 함께 호흡을 맞췄다.

지난해 개봉, 전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했던 '트왈라잇' 시리즈의 두번째 이야기인 **'뉴문'**(19일 개봉) 역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뉴문'은 벨라와 에드워드'의 운명을 위협하는 볼투리가와의 대결과 늑대인간 퀼렛족의 등장을 그린 판타지 블록버스터다. 전편 '트와일라잇'에 등장했던 인물들과 더불어 뱀파이어 세계의 절대권력 볼투리가와 인간의 수호자 늑대인간, 퀼렛족 등 더욱 막강해진 캐릭터들로 올겨울 또 한번의 신드롬을 일으킬 전망이다.

/김미은기자 mekim@

〈크리스마스 캐롤〉

〈아바타〉

〈셜록 홈즈〉

〈뉴문〉

〈2012〉

새 영화 '집행자'

사회 찬반논란 거센 '사형 제도' 소재화 조재현·윤계상 호흡

찬반 논란이 거센 민감한 문제 중 하나인 '사형제도'를 소재로 한 영화다.

재경은 3년의 고시원 생활끝에 드디어 교도관으로 첫 출근하게 된다.

하지만 첫날 부터 짓궂은 재소자들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어리숙한 그의 행동을 본 선배 교도관 종호는 "짐승은 강한 놈에게 덤비지 않는 법"이라며 재소자를 강하게 다루는 법을 몸소 보여준다.

20년 동안 재직해온 최고 선배 김교위는 사형선고를 받은 재소자와 우정을 맺으며 휴머니즘을 몸소 실천하는 또 다른 모습의 교도관이다.

얼마 뒤 전국을 경악케 한 연쇄살인범이 교도소로 이송되고 사법부에서는 성난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해 12년만에 사형 집행을 결정한다.

법무부의 사형집행명령서가 전달되자 교도관들은 패닉상태로 빠져드는데….

연기파 배우 조재현이 종호 역을 맡았으며 그룹 god 출신으로 '발레 교습소', '비스트 보이스' 등에 출연했던 윤계상, 박인환이 함께 호흡을 맞췄다.

〈18세 이상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